

‘DJ 고향’ 신안 하의도 삼도대교로 ‘성큼’

신의 잇는 다리 7년만에 개통 719억원 투입 550m 사장교 여야 국비 확보 한마음 ‘성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의에서 신의를 잇는 삼도대교가 착공 7년 만에 개통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삼도대교는 길이 550m, 폭 14.5m의 사장교다. 접속도로를 포함 총연장 1.389km로, 2010년 5월 착공해 국비 195억원, 도비 524억원 등 총 719억원을 들여 건설됐다.

전액 도비를 투입해야 할 사업이지만,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 2012년 15억원, 2013년 3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어 박지원·최경환(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이윤석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 한 국회 동서화합포럼에서 2014년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2015년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아 개통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날 열린 개통식에는 김갑삼 전남지사 권한대행, 손시엔위 주광중 중국총영사, 박지원·박준영·최경환(자유한국당)·최경환(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완중 익산시 방국도관리청장, 고길호 신안군수, 정광호 신안군의회 의장 등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1년 8월 지방도인 장산~목포 구간 78.9km가 국도 2호선으로 승격된 후 중앙부처에 삼도대교 건설을 건의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국가계획에서 제외된 바 있다.

신안군은 이날 삼도대교 착공에 기여한



26일 오전 신안군 하의도와 신의도를 잇는 삼도대교가 착공 7년 만에 개통해 두 섬의 주민들이 다리 위에서 자축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DJ 마지막 비서관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명에 하의면민증을 줬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비록 작은 다리가 개통한 것이지만 영호남 화합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생각한다. 잘 자라려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도대교 건설을 지원한 공로로 이날 감사패를 받은 박지원 의원은 “최경환 의원이 부총리 시절 예산 지원을 해줘 오늘의 영광이 가능했다”며 “김 전 대통령도 하의에서 ‘동서화합이 이뤄지는 다리’라며 기뻐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삼도대교 교량 명칭은 과거 하의도, 삼

태도, 하태도가 하의면으로 포함돼 하의삼도(三島)로 불렸고, 1983년 삼태도와 하태도가 방조제로 연결되면서 신의면으로 분면(分面)됐으나, 대교 개통을 계기로 지역 통합의 의미를 담아 주민 공모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법, 서남대 의대 졸업생 학위 인정

“취소 사유 인정되지만 졸업생에 너무 가혹”

학교가 거짓으로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돼 의학사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몰렸던 서남대 의대 졸업생들이 가까스로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전북 남원의 서남대를 운영하는 서남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의대 졸업생들의 학위취소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위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학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의대 졸업생들에게 너무나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2년 12월 서남학원과 서남대를 감사한 결과 임상실습과목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 이수시간이 모자란 학생 148명에게 학교가 거짓으로 학점을 부여해 이 중 134명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부속병원에 실습과목에 맞는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없어 수업이 정상적

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것이다.

교육부는 이듬해 1월 서남대에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134명에게 수여한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남대는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학교가 제공한 임상실습이 부실하다고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부실교육의 당사자인 학교와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에 있고 실습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 대법원은 ▲교양과목 미이수 학생에게 수여한 학위 ▲기준 미달의 인턴·수련의 과정에 참여한 학생에게 준 학점 ▲위촉 자격이 없는 외래교수의 위탁실습수업을 들은 학생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1년 이후 잇따라 부실대학으로 지정되고,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은 서남학원은 오는 8월 31일 서남대를 폐교하고 학원도 해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외고·자사고 폐지 바람직” 52.5%

리얼미터 여론조사 ‘유지해야’ 27.2%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 남짓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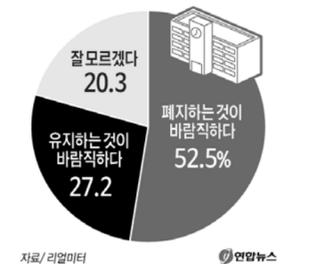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외고·자사고 존폐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2.5%,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3%로 집계됐다

고 26일 밝혔다. 학부모 중에서는 55.4%가 폐지를, 27.7%가 유지를 주장했고 학부모가 아닌 경우 폐지 51.5%, 유지 27.0%로, 두 경우 모두 폐지 의견이 훨씬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폐지 73.6%, 유지 14.7%)과 민주당 지지층(폐지 71.0%, 유지 11.4%)은 폐지 의견이 70%를 넘었고, 국민의당 지지층(폐지 42.6%, 유지 33.3%)에서도 폐지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폐지 15.3%, 유지 68.4%)에서는 유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바른정당 지지층(폐지 33.1%, 유지 37.8%)과 무당층(폐지 26.6%, 유지 40.5%)에서도 유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자사고 존폐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8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최종 506명 응답 완료 (95% 신뢰수준 ± 4.4%p)



자료: 리얼미터 /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896명(응답률 5.7%)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선(10%) 전화면접과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 생생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지난 1월 말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보정을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BS-수능 70% 연계’ 현재 심판대로

수험생·교사 등 “교육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교재와 강의 등에서 연계 출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수능 정책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선다.

26일 현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2명과 교사 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20일 현재에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이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교육부의 수능 시행계획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0년 교육부와 EBS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EBS-수능 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올 3월 2018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과목에 걸쳐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을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모의평가와 연계해 출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수능 문제의 일정 비율을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병장 월급 19만원 올라 4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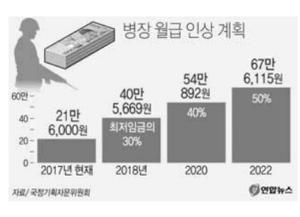
최저임금 30% 수준 인상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 장병급여를 올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선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은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동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래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인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 올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박 대변인은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이 된다. 연도별 소요재원과 관련, 이수훈 외교안보보좌위원장은 “내년에 드는 추가 예산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연합뉴스

은 7600억원 가량으로 8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2022년까지 5년간을 살펴봐도 4조 9000억원 가량으로 5조원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목돈 마련을 원하는 병사가 있으면 월급 가운데 일부를 예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는 선택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송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항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1,222 포함)
7. 쌍암동 6층 상가건물 대421㎡ 매22억원(보1,6억 월1,3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신원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방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번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복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마곡동 대광로제비안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 료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상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상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펜 션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상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 ▶ 서귀포시 대정읍 신광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토 지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 ▶ 제주시 한림읍 금느리, 전 2,777㎡, 자연복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산방산탄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탑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권력의 노하우 **올레탑공인중개사** 가성후·가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

쇼핑몰 MD, 웹디자이너 모집

농협회사법인(주)조이아드와 함께 온라인 식품산업을 선도할 책임감 있고 열정적인 인재를 채용합니다.

당사는 2001년부터 17년간 종합쇼핑몰, 홈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에서 농수축산물부문 전자상거래 산업을 선도해 오고있는 온라인 식품종합판매업체입니다.

모집부문

구분	인원	부문	주요업무
쇼핑MD	0명	신입 및 경력	상품관리 및 기획, 상품개발
웹디자이너	0명	경력	웹디자인, 콘텐츠제작
상품포장	0명	무관	농산물 택배포장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웹디자이너는 포트폴리오 첨부
3. 접수방법 : 이메일(shop@joyard.co.kr) 접수
4. 접수기간 : 2017년 6/26일~7/7일까지

기타사항

1. 문 의 처 : 062-523-2530 / 010-7713-2530
2.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90-34 (양산동 401-18) 본점산단 내
3. 근무시간 : 월~금, 08:30~18:30

농협회사법인(주)조이아드
http://www.purgen.co.kr